

9승 16패 지독한 원정 열세 이젠 끝내야 한다

KIA, kt·롯데와 원정 6연전 돌입... '윤석민 카드'로 마운드 전력 극대화 해야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끝내기 분위기를 이어 열세 만회에 나선다.

안방에서 홈 6연전을 치른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 길에 오른다. 주중 수원에 kt 위즈와 승부를 벌이는 KIA는 주말에는 사직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만난다.

'열세 만회'가 이번 주 KIA의 키워드다.

올 시즌 KIA는 원정에서 9승 16패의 전적을 보이면서 0.360의 승률에 그쳤다. 원정 첫 위닝시리즈도 가장 최근 원정인 지난 5월 25-27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서 겨우 이룰 정도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다.

여기에 8위 kt와 상대전적에서 3승 5패로 뒤져있고, 9위 롯데전 성적도 1승 3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끝내기쇼의 여운을 이어 열세 만회에 나서야 한다.

KIA는 지난 3일 싸늘이 3연패의 위기에 서 터진 황윤호의 첫 끝내기 안타로 두산에 12-11승을 거뒀다.

9회 1사 만루에서 믿었던 김선빈의 홈병살타가 나왔고, 연장 10회말 무사 만루에서는 한승택의 홈병살이 나왔다. 스윙 위기에 몰렸던 KIA는 황윤호의 생애 첫 끝내기

안타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KIA는 이날 잡자는 타선을 깨우기 위해 파격 라인업을 썼다. 나지안을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처음 1군에 등록한 고졸 3년 차 류승현에게 5번타자 겸 3루수의 중책을 맡겼다. 박준태, 오준혁, 최정민도 선발로 내세워 3회에만 6점을 뽑아내면서 새 바람을 불어넣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마운드 엇박자가 또 문제가 됐다.

일찍 팻딘이 강판된 뒤 불펜이 급하게 돌아갔다. 선발 임기영까지 불펜에 투입됐지만 결과는 11-11 연장 승부였다.

'김기태호'의 마운드 운영이 이번 한 주의 성적표를 바꿀 변수다. '윤석민'이라는

■ KBO 리그 팀순위 (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56	37	0	19	0.661	0.0
2	한화	57	33	0	24	0.579	4.5
3	SK	56	32	0	24	0.571	5.0
4	LG	60	33	0	27	0.550	6.0
5	KIA	57	28	0	29	0.491	9.5
6	삼성	59	28	0	31	0.475	10.5
7	넥센	60	28	0	32	0.467	11.0
8	KT	58	26	0	32	0.448	12.0
9	롯데	56	24	0	32	0.429	13.0
10	NC	59	20	0	39	0.339	18.5

카드로 마운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난 2일 윤석민이 복귀전을 치르면서 KIA 마운드에 선발 옵션이 늘었다. 한편으로는 마운드 계산이 복잡해졌다. KIA는 양현종-헨터-팻딘에 이어 임기영 그리고

을 시즌 선발 한 축으로 자리한 한승혁으로 5선발을 꾸렸다.

하지만 윤석민의 선발 투입으로 선발진 로테이션에 변화가 생겼다. 두산에 약세를 보였던 한승혁이 등판일을 미뤄 강세를 보인 kt전에 맞춰 5일에 출격하는 등 변화가 일었다.

문제는 '변칙 운영'이다. 5일로 등판 날짜가 밀린 한승혁이 지난 2일 불펜으로 실전 등판에 나섰고, 3일에도 경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불펜으로 이동해 몸을 풀었다. 대신 30일 넥센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해 97개의 공을 던졌던 임기영이 4일 만에 구원투수로 나서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불펜 세이브를 남겼다.

앞선 시즌에도 KIA는 선발의 불펜 투입 등의 '변칙 운영'을 몇 차례 선보인 적이 있

다. 하지만 선발과 불펜이 동시에 흔들리는 등 결과는 좋지 못했다.

타선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KIA가 윤석민 카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열세 만회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이번 주 KIA의 기록 행진은 계속된다.

이범호가 홈런을 터트리면 6년 연속 10홈런(통산 38번째)이 기록된다. 최형우가 두 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기면 11년 연속 10홈런을 작성한 9번째 주인공이 된다. 김주찬은 2타점을 더하면 700타점(통산 43번째)을 채우게 된다.

정성훈은 통산 9번째 3100루타에 4개를 남겨 두고 있고, 안치홍은 통산 90번째 500득점(-1)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깝다... 김효주·안병훈 연장 준우승



3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의 쇼얼 크리크 클럽(파72)에서 막을 내린 제73회 US 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김효주가 맹추격을 펼치며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주타누간과 연장 승부에 돌입했으나 아쉽게 패했다. /연합뉴스

김효주, LPGA US오픈 7타차 따라 잡았다 분패

김효주가 제73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500만 달러)에서 맹추격을 벌였으나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김효주는 4일 미국 앨라배마주의 쇼얼 크리크 클럽(파72-669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하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에리카 주타누간(태국)과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아쉽게 패했다.

2016년 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이후 LPGA 투어 우승 소식이 없는 김효주는 지난 9개 월까지 주타누간에게 7타 차 열세를 보이다가 맹추격에 나서 기어이 연장전을 성사시켰다.

연장은 14, 18번 홀 2개를 합산으로 먼저 1차 연장을 치르고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4, 18번 홀을 오가는 서든데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선을 잡은 쪽은 김효주였다. 14번 홀

에서 약 6m 긴 버디 퍼트를 넣은 반면 주타누간은 약 2.5m 버디 퍼트를 놓치면서 김효주가 1타를 앞서 나간 것이다. 그러나 18번 홀에서 김효주는 두 번째 샷을 벙커로 보내면서 한 타를 잃어 승부를 결정지을 기회를 놓쳤다.

18번 홀에서 치러진 연장 네 번째 홀에서 승부가 갈렸다.

두 선수 모두 두 번째 샷을 그린 주위 벙커로 보냈으나 김효주의 벙커샷은 홀에서 약 5m 이상 떨어진 반면 주타누간의 벙커샷은 홀 1.5m에 붙으면서 승부가 기울었다.

주타누간은 투어 통산 9승,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6년 7월 브리티시 여자오픈에 이어 2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90만 달러(약 9억6000만원)다.

한국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에서 지난해 8월 브리티시오픈 김민경(30) 이후 최근 3개 대회에서 연달아 정상 등극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안병훈이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마지막 날 4라운드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디샬보에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안병훈 PGA 메모리얼 토너먼트 "자신감 찾아 후회없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승을 노리다가 또 한 번 연장전에서 아쉬움을 삼킨 안병훈(27)이 "결과는 아쉽지만, 스스로 자신감을 준 대회"라며 힘을 냈다.

안병훈은 4일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마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연장전에서) 두 개의 파를 잡았는데 상대가 버디를 하니 어쩔 수 없었다"며 "후회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최종 라운드에서 세 타를 줄여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브라이언 디샬보, 카일 스탠리(미국)와 연장전에 합류한 뒤 디샬보에게 밀려 준우승했다.

2016년 5월 쥐리히 클래식에서 이어 두 번째 연장전 패배다. 스탠리가 먼저 탈락한 뒤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절묘한 위기 탈출로 첫 우승 꿈을 부풀렸다가 돌아섰기에 아쉬움이 더욱 짙었다.

이 홀에서 그의 두 번째 샷이 그린 너머 갤러리 자리까지 뺏어 버렸는데, 다행히 휠체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설물의 덕

에 공이 걸려 버터 없이 드롭했다.

주변에 배수 장치도 있어 다시 위치를 조정해 드롭한 끝에 더 나은 곳에서 세 번째 샷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흘리기까아 붙여 파 세이브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디샬보가 약 3.6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다.

안병훈은 "두 번째 드롭한 곳의 라이가 좋았다. 디샬보의 퍼트가 어렵지 않아 넣을 것으로 생각해 나는 어프로치 샷을 넣으려고 했다. 가까이 붙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디샬보가 낫더라"고 설명했다.

결과엔 아쉬움이 남았으나 그는 "(대회를 주최하는) 잭 니클라우스가 '수고했다. 어프로치 샷이 멋있었다'고 격려해주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안병훈은 "지난해보다 게임이 좋아졌다. 작년 여기서 경기한 것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 기대된다"며 "샷과 퍼트 모두 잘 돼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아시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11일 확정

24명 중 절반 투수

오는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11일 확정된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전임 감독은 11일 코치진 회의를 거쳐 태극마크를 달 24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 감독은 투수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24명 중 절반가량이 투수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구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열린다. 9월 1일 메달 결정전을 앞둔 8월 31일은 휴식일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위임을 받아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대표팀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4일 "아직 조직위로부터 어떻게 대회가 진행될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메달 결정전까지 한국은 6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대 10개 나라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개 나라가 본선에 올라 2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는 8월 26~28일 열린다. 조별리그 1, 2위 팀이 8월 29~30일 이틀간 슈퍼라운드를 치러 최종 성적 1, 2위 팀이 금메달 결정전을, 3, 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벌인다. 닷새를 연속해서 경기하고 하루 휴식 후 메달 결정전을 벌이는 일정을 고려할 때 선발 투수가 4~5명 정도 필요하다.

현재 KBO리그 투수 부문 타이틀 순위 상위에 있는 양현종(KIA), 김광현(SK), 정우람(한화), 함덕주(두산) 등은 최종 엔트리를 사실상 예약한 것으로 보인다. 긴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박종훈(SK), 심창민(삼성) 등 다른 나라에 생소한 '열구리' 투수들이 여럿 승선했지도 관심이 쏠린다.

선 감독은 지난해 24세 이하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된 선수들과 되도록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그러나 APBC에 참가한 선수들 대부분은 부상과 부진 등 여러 이유로 올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군 미필자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의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리게 됐다. /연합뉴스

김경문 NC 감독 교체... 유영준 단장이 대행

김어린 부진에 KBO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사령탑을 교체했다.

김경문 감독이 현장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NC는 김 전 감독이 구단 고문 호칭과 예우를 받는다고 지난 3일 경기가 끝난 뒤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11년 8월 NC의 창단 감독으로 부임, 7년간 NC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신생 구단임에도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올 시즌 깊은 부진에 빠져 10개 구단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유영준 단장이 감독 대행으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 단장 대행은 김종문 미디어 홍보팀장이 맡는다. 하루 만에 프런트에서 현장 사령탑으로 역할이 바뀐 유영준

NC 다이노스 감독대행은 "선수단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준 감독대행은 4일 "지금 다른 것은 없다. 감독 교체로 선수단이 동요할 수 있는데, 잘 토닥여줘서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감독대행은 NC 창단 때부터 스카우트로 활약, 나성범과 박민우 등 주력 선수 발굴을 주도하다가 지난해 1월 단장을 맡았다.

매교, 중앙대, 한국화학공에서 포수로 활동한 선수 출신이며, 장종고 감독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 구단 감독 경험은 없다. 유 감독대행 체제는 감독대행 본인도 선수단 모두에게 낯선 환경이다.

NC는 승리와 반등이 절실한 시점에서 파격적인 감독 교체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와 동반 라운드인 김민휘

"비디오서 봐서 익숙... 긴장보단 설렘"

"비디오에서 항상 봐 와서 익숙했어요. 실제로 보니 더 좋았습니다."

상상으로 그리던 타이거 우즈(미국)와의 동반 라운드를 실현한 김민휘(26)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휘는 4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마치고 "어려서부터 우즈의 스윙을 보면서 자랐다. 그의 모든 샷을 보고 배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민휘는 3라운드까지 9언더파 207타로 공동 7위에 올라 같은 순위인 우즈와

최종 라운드 한 조에서 경기했다. 2014년 PGA 투어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 첫 동반 라운드였다.

김민휘는 "같은 조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 긴장되고 떨리기 보다는 기쁜 게 우선이었다"며 "경기를 시작하면 떨릴 것 같았지만, 항상 비디오로 봐 와서 오히려 익숙했다. 경기 중엔 골프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하다가 보면 재미있었다. 많이 배우며 즐겁게 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